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아주 큰 힘이 일어납니다

☞ 21면에서 계속

것을 말한 것은, 우리 지리를 한번 봅시다. 이 땅의 문제가, 땅이 전부 금속이라고 한다면 "오온에 칠보가 가득 차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현실의 실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옛날에는 금 하나를 만약에 발견했다면 금으로만, 땅에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에 보세요. 얼마나 그 땅의 하나하나가 우리의 보물이었던가를. 하나둘입니까? 보배는 땅속에서 다 나오는 거라. 물속, 땅속에서 다 나오는 거라. 물속도 땅이 없으면 물속이 없어요. 결부되지 않는다면 보물이 될 수 없듯이.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지구의 근본 그 자체도 우리의 한마음 한뜻이다 이거야. 그건 왜? 지구의 근본의 그 원력이 돌아가면서 뜨거운 가스와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무슨 이산화탄소나 그런 현재 말이 거기에 포함되는 바로 그러한 원리로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뜨겁게 불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아주 큰 힘이 일어납니다.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고 흐트러지면 아주 차게 식습니다. 또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고 흩어지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흩어지면 모든 게 그렇게 풍비박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일을 해내지도 못하죠. 그렇듯이 한꺼번에 그렇게 한데 뭉쳐지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와서 이 온 누리에 모두 보배가 된 것입니다.

흙과 물과 나무, 풀과 모든 것이 전부 구워지면 구워지는 대로 보석이 되고, 구워지면 구워지는 대로 철이 되고 금속이 되고 또는 금이 되고 가스가 되고, 그 가스로 인해서 또 수없이 쓰게 되고, 물로도 쓰게 되고, 거기에서는 뭐든지 하나하나가 보배라. 그러면 습도로 인해서 우리는 전기도 쓰고 습도로 인해서 공기도 있고, 모든 게 땅속이고 물속이고 지금 지상이고 지하고 전부 공기가 통하고 있는 거라, 전부. 이 흙 하나하나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게 보석의 근거지를 지금 밟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은 그러한 한마음이다 이거야.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줄 알지만 하나하나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생명이 있고, 이것도 목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신인데 이걸 목신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을 법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법상입니다. 이건 법상으로서 존재가 있습니다, 개성이 있고. 이것도 실천에 옮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한마음으로서 조금도 버리는 게 없이, 우리는 갖는 게 없으면서도 버리는 게 없이 겸손하고, 항상 내 위로 생각하지도 말고 내 아래로 생각하지도 말고 모든 걸 나와 같이, 내 슬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쓰라림과 같이 생각하고 바로 나의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저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굴려 보는 이러한 지혜를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항상 단순하게 나는 나, 상대방에서 말을 하면, 말을 하는 대로 부화가 치밀면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혜가 없이 굴릴 줄을 모른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이익은 소소합니다. 언제나 큰 이익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솔해서.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참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겁니다. 맡겨 놓으라는 얘깁니다. 참으라는 거는 그냥 '에이, 될 대로 돼라.' 하고 내버리는 거지만 이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근본 당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근본 당신은 개별적인 당신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당신이야. 포괄적인 원자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리의 풍수도 있고 모두가 풍수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마는…,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었죠. 산소를 잘 쓰면 천석꾼을 하고 산소를 못 쓰면 가난하다. 또 산소를 잘 쓰면 부모가 잘, 조상이 잘해서 우리가 정승 판서가 되느니 인군이 되느니, 무슨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거는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만약에 일체 만법의 근원으로 인해서, 전체가 그 하나의 근원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면 뭣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좋다 하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이 자리가 좋다 하면 그냥 좋은 거지 무엇을 짊어지고 돌아다니며 찾습니까, 좋은 자리를. 이게 전체의 보배 자리 한자리인데 자리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이며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패가를 한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 남의 좋은 자리를 파버리고 자기네 조상 갖다 묻기 일쑤고. 지금도 좋은 자리 찾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내 자리가 좋은 자리야. 간편하고 불편치 않게, 물 흘러가듯이 순수하게, 이렇게 순리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쩌면 금은보배를 얻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죽고 사는 것이 따로 없다. 옮겨 갈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얄팍하게 생각한다면 '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죽었으니 인제는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이 도자기를 만들어 놓는 순간 벌써 이 모습으로도 전달을 했고 마음으로도 전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죽고 사는 게 따로 없고,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공부를 하면 어디든지 '이 자리가 이 자리야.' 한다면 이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자리가 이 자리다.' 하면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쓸모 있게 생각하면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것을 실천을 안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 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 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인내가 있고 패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좀 밀고 나가는 힘이 그만큼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역할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자기가 감응이 되고, 절대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는 길은 가르쳐 줘도 장 보는 일은 가르쳐 주지 말라. 장 보는 건 자기가 봐야지. 그런데 얘기할 수 없는 애매한 그러한 문제가 곁들여 있는 게 참 아쉽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 놓으면 또 역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마음이 착해서 부모를 위해서 어디 가질 못하고, 부모 돌아가시면 떠나려고 영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숯을 구워 먹고살았어요. 그전에 제가 토굴에 있을 때 얘깁니다. 숯을 구워 먹고사는데 항상 토굴 옆으로 지나가거든. 그런데 숯을 구워도 그저 얼마 되질 않아, 다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이상스럽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토굴 문 앞에 사람들이 돈, 은전을 갖다 놓는 거를 제가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사니까 너 보기 싫다.' 하고선 팽개쳤거든요. 그래 숯장수가 오면가면 주워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 숯장수를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바깥에 돌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숯을 지고 그 아래로 내려가요. 나는 버섯을 따려고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참인데 말입니다. 나도 먹어야 사니까 그랬겠죠. 철사 하나하고 성냥 하나하고 소금 조금하고 이렇게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전에 일본 사람들 하는 금광을 조금 같이 한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고 그러니까 저 춘천 뭐, 강릉이라나 어디에서 했다고 합디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한번 더 해 봐, 거기 가서."

이 지리라는 것이, 이 맥이라는 것이 따로 있기는 하나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한 점의 마음에 의해서 이 맥도 다 같이 한마음이 돼 버려.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금맥이 있어도 안 보여. 마음이 그만큼 금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앞에나 금맥이 보이는 거야. 금이 돌로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삼이 도라지로 보이기도 하는데, 뭐. 허!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묘한 법입니까.

거기서 자기 살 만큼 나오고 딱 그친 거야. 그러니 집 짓고 장사할 돈, 그거밖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죠? 그 무슨 가게야, 그게? 철물점? 그거 할 돈만 생겨 가지고 그거 해서 살아요. 그런데 밥은 안 굶고 형제들도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끌어 나갔다는데요, 그 후에는 뭐, 물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하지마는 그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사람이 이 지리도 학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의 그 근본이, 벌써 내 마음이 피난처라. 이게 보배야, 모두가. 천체 만법을 활용하는 데도 그렇지마는 만법을, 내가 모든 거를 응용하는 데도 이게 근본이라. 보배라. (녹음 안됨) … 꺼내 쓰면 돼. 구태여 짊어지고 다닐 게 뭐 있나, 귀찮게.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짊어지고 안 다니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거야. 가면 내 거고 거기 가면 내 자리고 가면 먹는 것도 있고, 가면 모두가 있는데 왜 그걸 짊어지고 다녀? 그리고 또 욕심을 낼 수가 없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죠. 여러분은 짊어지고 가야 먹겠으니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내 것이 거기도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리에 관한 것도 한마음, 이 한 점의 보배에 있다는 거요. (중략)

우리가 배우는 데는 아주 쉽게, "무조건 맡겨 놓아라. 맡겨 놓고 살아라. 무조건 거기에서 만법이 나온다. 만법은 오관을 통해서 그리로 든다.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거, 그 빗장을 쥐고 놓지 말아라. 언제나 들 때는 그거를 꼭 쥐어야만이 문을 열 수 있고 그거를 쥐어야만이 문을 닫을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배우는 분들이 앉아서 하는 것도 참선이요, 서서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요, 밥을 먹는 것도 참선이요, 변소에 가서 똥을 누는 것도 참선이요, 자는 것도 참선이요, 자는 것도 자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닙니다. 낮 밤이 따로 없고 동 서가 따로 없고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생사가 따로 없고 윤회가 따로 없습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앞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에너지가 수천수만의 에너지와 포함해서 돌아갈 수 있고 줄 수 있고 우리가 불릴 수 있다면, 본래 불려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전자에는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알아서 쓸 수 있고 지금은 뭐, 기계를 갖다 대면 물이 흐르고 그런 것도 다 알지마는…. 그것도 기계를 갖다 대야 하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물건을 갖다 대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 밑에, 몇 킬로 밑에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된 거를 다 알고 처리까지도 하거든.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기계를 갖다 대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만약에 6·25 같은 난리가 났을 때에 쫓겨 달아나가면서 그런 기계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나 죽을 데가, 나 살 데가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쫓겨서 달아나가겠습니까? 피난 자리도 바로 내 마음에 있어.

그런데 오늘 모르는 거 죽어서 내일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있을 때, 부딪치고 다 상대가 있을 때에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차원이 낮고 지금 모른다면 이 몸을 벗고도 몰라서 멍청하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육안으로라도 보지만 이 육이 떨어지면 눈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뭘로 보렵니까? 식이요? 식각으로? 또는 촉각으로나 감각으로 보고서, 그걸로 알고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 돼지 속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데로나 들어가서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다면 또 한 생을 어떻게 보내렵니까. 그러니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게 여러분이 자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처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한번 저 사람이 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굴려보는 지혜를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위 법문은 1986년 6월 22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